

내가 왜 떴게?

다니엘리즘



강다니엘

선보였다. 비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무실 직원이 보내준 영상을 봤다. 정말 훌륭하게 잘 했다. 나보다 더 잘한 것 같다”며 극찬을 늘어냈다. 이 곡의 작곡자인 배진렬씨도 찬탄했다는 후문이다. 비가 남긴 전설의 무대를 또 한 명의 천재 강다니엘이 완벽하게 재해석해 다시 완성해냈다. 강다니엘의 ‘다니엘리즘’이라 부를 만하다.

과도하게 잘 나온 사진



서유리

은 기쁨에 잘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사진이 과도하게(?) 잘 나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진이 과도하게 잘 나오는 바람에 성형의혹이 불거졌다는 얘기. 2016년부터 갑상선 치료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완치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뭐, 부었을 때도 예뻐 답니다.

굳이 물으신다면



이혜정

감도는 독특한 컬러다. 이씨는 “갑자기 겨울이 지루해서 염색했어요. 어때요?”하고 팔로어들에게 물었다. 굳이 물어보시니 말씀을 드리자면, 등푸른 생선요리가 생각납니다.

‘카지노 LG’의 도덕적 해이 | KBO, 구단에 경위서 받아

위법 아니라고? 도박처럼 중독된 ‘클린 불감증’

800만 관중시대가 부끄러운 사건 사고 2015년 해외원정도박 상처 생생한데 선수의 자세 망각한 행동 따가운 시선 KBO “품위 손상 따져 내일까지 조치”

프로야구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공인’의 자세를 잊은 선수들에게도 연신 경고신호가 가고 있다.

LG트윈스가 다시금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11일 차우찬을 비롯한 4명의 선수들이 스프링캠프 장소인 호주 시드니에서 휴식일을 이용해 현지 카지노에 간 사실이 알려져서다. 게임을 즐기는 데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새 시즌을 앞두고 훈련에 몰입해야하는 선수 본연의 임무를 잊고 KBO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한국야구는 2015년 해외원정도박을 저지른 선수들로 지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긴 터라 아쉬움이 크다.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마다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는 식이다. 2018년엔 특히 눈살을 찌푸릴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5월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과 조상우가 원정경기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오랜 법적공방 끝에 최종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국민일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선수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기에 마땅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따른 병역 면제혜택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선수선발 배경과 만족스

럽지 못한 경기력을 놓고 내내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결국 국정감사로 이어져 선동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렇듯 수백만 관중을 거느리는 프로야구는 한껏 높아진 팬들의 기대치와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LG 선수단의 카지노 출입 사건을 바라보는 KBO의 시각도 동일선상에 있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옳고 그른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린베이스볼’을 확립하려는 KBO 리그의 정책목표를 생각한다면 선수들로선 더욱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KBO가 13일 LG로부터 카지노 출입과 관련한 구단의 경위서를 받은 가운데, 해당 선수들에게 주어질 징계는 곧 프로야구 전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정금조 클린베이스볼 센터장은 “법률과 야구 규약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한다. 법에 저촉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품위손상 여부를 따져 적어도 15일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과한 징계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위법성을 떠나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선수단과 KBO 전체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예능계 대세로 뜬 ‘실버 스타들’

‘도시어부’ 이덕화, ‘덕화TV’ 히트 박정수·변희봉도 예능 고군분투 새로운 도전·소탈한 모습 큰 반향

최근 예능계에 ‘실버 바람’이 불고 있다. 연기자 이덕화(67), 박정수(66), 김보연(62) 등 60대 스타들이 예능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활동 영역 넓히기와 나이에 얽매지 않는 도전이 잇따르면서 시청자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들이 ‘예능계 블루칩’으로 떠오르자 방송사들도 저마다 ‘6070세대 스타 모시기’에 나섰다.

채널A 인기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로 ‘예능 대세’로 자리 잡은 이덕화는 26일 첫 방송하는 KBS 2TV ‘덕화TV’를 통해 또 한 번 기세를 이어간다. ‘덕화TV’는 앞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개설한 개인 채널로, 이덕화는 혼담(혼자 밥먹기), 축구, ASMR(자율감각 쾌락 반응·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 등 콘텐츠를 통해 1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해왔다. 젊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채널 개설 한 달 만에 5000명의 구독자를 모은 데 이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졌다.

박정수, 김보연, 박준금(57)도 현재 방송 중인 tvN 예능프로그램 ‘할리우드에서 아침을’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중년에 접어든 여배우들이 할리우드에 데뷔하기 위한 여정을 담은 프로그램에서 이들은 영어 강습을 받고, 오디션에 보낼 프로필 테이프를 제작하며 고군분투한다.

연기자 변희봉(77), 가수 설운도(61) 등이 10대 어린이와 우정을 쌓아가는 tvN ‘나이가차’에 참신하다는 호평을 등에 업고 최근 정규 편성되기도 했다. 김수미(70)도 지난해 6월부터 tvN ‘수미네 반찬’의 부엌을 책임지고 있다.

이들에 앞서 연기자 이순재(84), 신구(83) 등이 출연한 tvN ‘꽃보다 할배’가 시즌5까지 이어지면서 작위적인 연출



노년의 스타들이 뜨고 있다. 이덕화, 박정수, 변희봉(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등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색다른 재미를 안기고 있다. 사진제공 | KBS·tvN



없이도 ‘실버 예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각 프로그램 제작진의 노력과 인

생 및 활동 경험 많은 이들 스타들의 꾸준한 소탈함이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컬링 ‘팀킴’ 복귀전서 의미 있는 준우승

동계체육대회서 경기도청에 6·7 패스킵 교체·6개월만의 실전 불구 선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던 ‘팀킴’이 복귀전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경북체육회 컬링팀(김경애·김초희·김선영·김영미·김은정)은 13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경기도청(김은지·엄민지·김수지·설예은)에 6-7로 패했다.

우승을 놓쳤지만 의미 있는 복귀무대였다. ‘팀킴’은 평창올림픽에서 스킵으로 맹활약한 김은정이 결혼 후 임신하면서 이번 대회에는 김경애가 스킵을 맡는 등 포지션에 변화가 있었다. 훈련시간도 부족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

협회 부회장과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담한 대우를 받았음을 폭로했다. 논란이 뒤따랐고 이후 12월야야 빙상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8월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6개월 만에 치른 실전경기였다.

경북체육회는 준결승에서 현 국가대표팀인 춘천시청(김민지·김혜린·양태이·김수진)을 연장승부 끝에 꺾고 결승에 올랐고, 1점차로 준우승을 거두며 저력을 보여줬다. 결승전에서는 4엔드까지 1-4로 뒤졌지만 7엔드에 동점에 성공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경기도청은 마지막 10엔드에서 1점을 따내며 우승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평창올림픽 대표팀이었던 경북체육회(김창민·이기정·오은수·이기복)가 현 국가대표팀인 서울시청(김수혁·이정재·정병진·황현준)을 8-6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경북체육회 컬링팀 ‘팀 킴’의 스킵 김경애가 13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스톤을 굴리고 있다. ‘팀 킴’은 경기도청과의 결승에서 6-7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뉴스